

# 이념의 근대와 분열/착종되는 근대 여성의 정체성과 담론

- 『제국신문』 논설·기서(별보)·서사의 여성 담론과 재현 -

최기숙\*

「차례」

1. 서론: 『제국신문』의 여성 담론과 상상된 여성 이야기
2. 『제국신문』 여성 담론의 지형과 근대 착종: 논설과 기서(별보)
  - 2.1. 근대의 눈과 『제국신문』,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 2.2. 부정된 여성의 전통/문화
  - 2.3. 풍속개량과 진/근대 여성
  - 2.4. 방황하는 젠더 인식, 여성 주체 구성의 착종
3. 전통 윤리의 지속과 부재하는 근대 여성: 서사
  - 3.1. 현모양처 여성상의 지속과 근대 여성의 딜레마
  - 3.2. 충·효·열의 희생자, 부재하는 여성의 자리
  - 3.3. 남성의 조력자, 산종되는 여성의 주체성
  - 3.4. 열의 윤리에 대한 옹호와 음녀에 대한 규탄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근대 초기에 ‘근대 기획’의 과정에서 ‘전통적’ ‘문화·관습·풍속·제도·사상·학문’ 등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형식으로 근대의 새로운 문화와 풍속, 제도를 창출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근대 계몽의 논리가 지닌 모순과 착종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

이러한 점이 발견되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근대와 전근대의 불균형한 만남으로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여성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면서 국문표기를 선택했던 『제국신문』의 논설과 기서(별보), 서사에 나타난 여성 담론과 재현 방식을 분석했다.

기획과 이념으로서의 근대는 일상과 경험으로서의 근대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았으며, 삶과 이념, 경험과 논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정서적 모순이 발생했다. 젠더적 차원에서 근대는 전근대의 여성문화를 ‘개량’의 대상으로 전제했으며, 조혼, 개가금지 등을 비판하면서 근대 여성의 개화와 계몽을 촉구했다. 그러나 ‘풍속개량론’에서 다루어진 근대 여성의 역할은 여전히 어머니와 내조자의 위치로 한정됨으로써 이전 시대와 연계성을 보였다. 여성이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자녀의 가정교육과 가족사회의 쾌락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여성의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설의 주장은 이를 지지하는 여성독자의 투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확산되었다.

독자의 상상적 지지와 호응 속에서 성립하는 서사의 경우에도 여성은 여전히 가장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현모양처의 형상을 유지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 자리를 누락시킨 채, 삼종지도를 따르거나 충효열의 이념에 희생되는 여성을 치하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남성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성과 삶을 희생하는 여성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기술하는 한편, 여성을 남성의 조력자로 형상화했다. 논설에서 강조되었던 근대적 여성상과 문화 내역은 여전히 전근대적 여성성의 자장 안에 포섭되어 있었으며, 여성의 열을 표창하는 문화가 이어지면서 음녀를 규탄하는 담론을 이어갔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근대성에 대한 정의의 착종과 모순, 역설로 규정하고, 바로 이러한 모순이 근대에 존재하던 문화의 현상이었음에 주목하여, ‘하나이지 않은 근대’를 재성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1)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7431)

핵심어: 제국신문, 근대, 역설, 착종, 논설, 기서(독자투고), 서사, 여성, 풍속개량, 현모양처, 전통, 하나이지 않은 근대

## 1. 서론: 『제국신문』의 여성 담론과 상상된 여성 이야기

이 연구는 근대 초기<sup>1)</sup>에 ‘근대 기획’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문화·관습·풍속·제도·사상·학문’ 등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형식으로 근대의 새로운 문화와 풍속, 제도를 창출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근대 계몽의 논리가 지닌 모순과 착종이 발생하는 것에 착목했다. 그리고 이를 근대를 재성찰하는 분석의 관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구화·문명화라는 개념과 현상을 중심으로 계몽의 근대를 정의해 온 근대의 지식인과 언론의 시각과 태도를 정면으로 재검토하되, 특히 전통과 근대의 불규칙한 조우, 또는 비대칭적 만남을 근대성의 한 측면이자 정면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하나이지 않은 근대’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을 재구성하고자 한다.<sup>2)</sup>

이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근대성의 재성찰에서 갖는 젠더적 관점의 유효성과 의의, 다시 말해 근대성의 함의를 재규정하는데 젠더적 시각이 갖는 성찰성의 기능과 의미에 관한 것이다.<sup>3)</sup> 근대 초기에 신문이나

- 1) 통상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근대계몽기, 근대전환기, 애국계몽기 등의 용어로 호명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 해당 시기와 식민지 시기와의 연계성에 주목할 필요에 의해, ‘근대 초기’라는 다소 광의의, 보편적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본 연구자는 근대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을 배제하고 성립하는 당대적 근대 담론의 형성과 후대적 차원의 근대성 연구를 ‘계몽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근대성을 다각도에서 재성찰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는 최기숙, 「전통과 근대의 ‘부정교합’, 표류하는, 서사의 근대성: 『제국신문』 서사의 근대성과 고전 서사의 소환 방식」(한국고소설학회 제 104차 학술대회 발표문, 2014②.1.15.(수), 숭실대학교 벤처관 311호)의 발표문을 참조. 여기서 ‘하나이지 않은 근대’는 Luce Irigaray의 ‘하나이지 않은 성(Ce sexe qui n'en est pas un)’을 차용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근대의 착종과 역설을 근대지식인과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작업 이후에, 근대성을 해명하려는 학술 연구가 근대 지식인의 논리를 반복함으로써 보이는 착종과 역설에 대해 연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3) 근대 초기의 여성 인식과 문화, 글쓰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

잡지 등 근대적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근대 기획에서는 근대를 보는 시선과 근대성의 내용을 구성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일상과 사회적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대 언론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근대 계몽의 논리를 담론화하도록 추동했고, 이에 근간하여 여성을 둘러싼 상상력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근대 서사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획과 이념으로서의 근대는 일상과 경험으로서의 근대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삶과 이념, 경험과 논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정서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성의 정의에 부합하는 근대지식인과 언론의 논리를 추려내는 방식을 지양하고, 근대 매체에 수록된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근대성의 논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대 매체에 수록되지 않은 당대성의 문화 논리와 당대적 문화 주체의 구성 및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젠더적 차원에서 성찰하려 할 경우, 근대 기획의 논리와 담론화 과정에서 여성이 호명되고 포섭되는 담론의 지형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근대 지식인이 제안하거나 합의한 ‘근대성’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수렴하여 ‘근대 여성’의 정체성과 문화를 독해하는 관점을

전여성문학회, 2004.;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 일본인 발행신문 『한성신보』 연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박애경, 「야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제국신문』에 나타난 첩·무녀·기생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회, 2008.;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7.; 「근대계몽기 지식, 여성, 글쓰기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 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 역사』 12, 한국여성사학회, 2010.; 김기란,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인화 과정 고찰: 『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등. 이 중에서 『제국신문』을 다룬 이경하·박애경·서지영의 논문은 각각 1898~1907년(5월 27일까지)·1898~1907년(2월 25일)·1907년(4월 3일)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시기의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양한다. 예컨대, 근대에 관해 연구할 때, 근대의 개념과 정의, 인식과 입장을 명시적으로 제출한 지식인과 매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식인 중심의 근대(성) 연구를 하게 되는 순환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근대언론 매체에서 누락된 대상·경험·인식·관점은 근대를 이해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 자체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근대 지식인과 언론이 주장하는 근대의 정의와 내용에 맞는 텍스트만 연구할 경우에도 같은 모순이 반복된다. 본 논문에서 근대 지식인과 언론이 당대 문화로서의 근대에 대해 제출한 입장의 불일치와 논리구조의 착종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 근대초기 인쇄매체에서 근대 여성에 관해 다룬 논설과 별보(기사)에 주목하는 한편, 상상된 서사에 나타난 ‘일그러진 근대성’, ‘착종된 근대성’, ‘모순과 역설’의 차원에 주목한다. 이는 이념이 아닌 현실, 기획이 아닌 현장으로서의 근대의 정면을 파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의 다층적 현장성을 복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근대 초기 ‘계몽의 역설’이 젠더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며 전파되고 확산되는지에 관한 문화사적 맥락을 해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여성을 중심 독자로 상정했던 근대초기 인쇄매체인 『제국신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택하여 창간호부터 다루되, 특히 그간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자료인 『제국신문』이 지면확장을 시도한 1907년 5월 17일~1909년 2월 23일까지 발행된 자료를 ‘중심 대상’으로 삼는다.<sup>4)</sup> 이때 신문의 지면 배치와 기사 수록의 맥락성을 고려해, 논설·기사·별보와 잡보란에 배치된 서사에 주목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 착안한다.

4) 본고에서 다룬 『제국신문』의 연구 대상은 창간호부터 1909년 2월 23일까지이다. 이 시기의 『제국신문』에 나타난 근대에 대한 시선과 입장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변경되거나 수정되는지,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언론 매체의 입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는 다루지 않았다. 한 편의 논문에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미소개 자료를 ‘중심 텍스트’로 삼았음을 밝힌다.

첫째, 논설은 계몽의 언설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지면이라는 점에서 근대 계몽의 논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란이며, 해당 신문의 논조를 대표하는 담론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논설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인식·주장·시선을 살핌으로써 근대초기 계몽적 지식인이 주도한 근대 여성의 담론의 주요 논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별보와 기사는 독자 투고를 비중 있게 다루어 논설란에 배치한 경우인데, 대체로 신문사의 논조에 동의하거나 이를 지지하고, 때로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계몽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언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신문의 논설이 독자에게 갖는 영향력 및 신문과 독자, 언론과 대중의 관계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sup>5)</sup>

셋째, 잡보란에 실린 서사는 허구적 상상력에 근거한 소설 또는 사실에 근거한 서사적 기사 형식을 띠고 있다.<sup>6)</sup> 서사는 독자 대중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성립하고, 또한 이를 추동하고 유지하면서 전파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서사에 나타난 여성 인식, 여성의 정체성, 여성 담론의 주요 화제를 살피는 것은 당시 대중의 여성에 대한 시선과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제국신문』에 실린 논설과 기사(별보), 서사적 기사 및 소설에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근대적 이해와 여성 담론들은 동일한 근대적 수사와 논리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사가 전하는 여성 인식이거나 담론이 논설이나 기사(별보)에 실린 집필진이나 독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서사 논리로 구성되기도 한다. 예컨대, 일부 서사에서는 전통적

5) 물론 독자 투고나 기사 중에는 논설의 논지에 반하는 반박문이나 비판의 글이 실리기도 한다. 이 또한 신문의 논조에 ‘대항’ 주장과 언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신문에 대한 영향력의 자장 안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 서사적 기사란 김영민의 ‘논설체 서사’와 ‘서사체 논설’이라는 개념에 착안해 필자가 명명한 것으로, 이야기 형식을 띤 사건 기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명명은 문학사에서 소설의 출현을 이전 시기로부터의 발전론으로 보는 시각을 재성찰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 소설이라는 특정한 문예양식보다는 ‘서사’라는 광의의 이야기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제시한 최기숙의 발표문(2014a)을 참조.

가치관이나 문화 관습에 따른 서사논리와 근대 논리가 착종적으로 조우함으로써, 논리 구조의 정합성과 정서 구조 사이에서 모순을 보이며 분열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중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모종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이러한 착종적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근대’의 다층적/다면적 모습의 일단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전통과 근대의 부정교합, 또는 불일치한 만남의 정황 자체를 근대에 대한 정의로부터 배제하거나, ‘반(反)’근대, 또는 ‘비(非)’근대로 보려는 입장(이는 당대적 입장과 근대 연구자의 입장 모두를 포괄한다)을 재성찰하는 관점을 강조한다. 특히 젠더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응답함으로써, 근대성의 이해 · 구성 · 연구의 관점에 대한 재성찰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제국신문』 여성 담론의 지형: 논설과 기서(별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의 언론과 인쇄매체는 근대계몽의 논리를 설파하는 지식과 정보의 매개가 됨으로써, 근대사회에 언론의 문화적 지위를 선점해 왔다. 따라서 근대의 신문은 세계의 정세, 근대의 학문과 지식, 근대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을 읽는 독자’를 ‘근대인’으로 호명하는 언론의 문화정치를 작동시켰다.<sup>7)</sup> 근대의 언론은 근대를 구성하는 콘텐츠로서 신물문과 개화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신문을 읽는 독자들을 계몽하고, 또한 이에 응답하는 독자들의 서신을 별보나 기서 형식으로 게재함으로써, 근대성의 사회적 회

7) 신문화 주체로서 ‘지식’이 매개되는 과정은 최기숙, 『‘신대한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 생태학: 『소년』과 『아이들보이』를 중심으로』(『상허학보』 16, 상허학회, 2006), 2~13장을 참조. 신문과 ‘독자’ 개념의 근대적 매개에 대해서는 전은경, 『근대 계몽기의 신문 매체와 ‘독자’ 개념의 근대성: 번역어 ‘독자’의 성립 과정과 의사소통의 장』, 『현대문학이론연구』 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을 참조.

전과 유통을 현실화하는 문화적 기제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대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차원과 근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또는 무엇이 근대인가)라는 ‘시선’의 차원이다. 근대 언론은 바로 이러한 양자의 차원에서 근대성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역할에서 『제국신문』 또한 예외적일 수 없었다.

이 장에서는 『제국신문』에 수록된 여성 담론의 지형을 논설과 기서(별보)를 통해 살펴보고, 근대적 여성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기 위해 전통 여성과 전근대 여성의 삶이 부정과 비판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성 주체 구성에 관한 젠더적 착종 현상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 2.1. 근대의 눈과 『제국신문』,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근대 초기에 『제국신문』은 시대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강조하면서, 관직의 고하, 보유 자산의 고하로 사람을 평가하는 종래의 기준에서 벗어나, ‘학식’에 따라 ‘사람의 등분’을 나누는 근대적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를 재편하려는 근대 기획의 태도를 강조했다. ‘관직’이나 ‘자산’이 ‘근대가 아닌’(이는 문자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의미론적 맥락상 ‘전(前)근대’ 또는 ‘반(反)근대’를 의미한다) 시대/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제국신문』은 ‘학식’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제출하고 이를 유효화하기 위한 논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의 ‘학식’이란 물론 ‘근대적 지식’을 의미했으며, 개화 · 문명화 · 서구화의 의미를 함축했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기준은 ‘전국 인민’과 ‘남녀로소’를 막론하는 보편적 시선이라는 논리 속에서, 신문이라는 근대적 인쇄매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전제로 한 일종의 문화 권력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녀로소’를 근대 국민으로 호명하는 형식으로

‘여성’을 근대 주체로 포섭하는 근대기획의 시선이 관철되어 있었다.

① 사람의 등분은 학식을 닦음이니 학식이 있는 자는 상등이라 하고 학식이 없는 자는 하등이라 하는 것은 세계에 통동한 일이거나 우리나라 소위 상등 인류란 것은 학식의 유무를 말하지 않고 다만 사람의 관직의 위나 높고 또 직사나 넉넉하야 압제로 남을 잘 부리고 남이 추앙하는 자를 칭왕 상등이라 할 터이니, 그는 나라의 통이 학식을 숭상치 안어서 학식 있는 자가 없는 연고라 할 터이나 (...) 매일 증거 있는 일도 말하건대 근일 전국 인민이 무론 남녀로소하고 각기 형세되로 추렴할세 심지어 부인 유자들이 다 국책을 감하여 우리가 남의 로 예를 면하고 살것다 하야 부모의 병이 들어 약을 먹으면 살것다 하되 너노치 안을 부인 유자의 스랑하고 옛기던 직물을 글너노코 □원이 장지슈지하야 가며 성화독촉하는 구실돈은 너지 안으면서도 이 돈은 너야 나라□ 된다 하며, 다만 일꾼이라도 안이 너는 자 없는 것은 그 상등 인류란 자들도 다 알 듯한디 (생략) (『론설: 우리나라 상등 인류란 사람들은 하등으로 되접할 일』, 1907.5.4.)<sup>8)</sup>

② 학문이라 하난 것은 사람으로 하야금 능히 규석이 었더한 물건인지 알게 하며 리치가 었더한 물건인지 분별케 하난 힘이 었게 하야 학문이 었는 사람은 상등이라 일컷고 학문이 없는 사람은 하등이라 일컷나니 (『론설: 학문으로 사람의 우열을 말함이라』, 1907.5.31)

『제국신문』은 국채를 갚기 위해 아끼던 물건을 팔아 성금을 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한 여성을 치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근대가 지향해야 할 ‘상등 인류’의 자격을 부여했다(①, ②). 말하자면 국민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것 자체를 근대적 학식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일종의 자격 요건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시선을 형성했으며, 여성은 바로 그러한 시선에 포섭됨으로써(①)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sup>9)</sup>

『제국신문』에서 여성은 기사의 형식으로 투고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해왔다. 신문을 통해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제국신문』의 논지에 동의하고 지지하며, 자신의 사례를 보탬으

8) 논문에 『제국신문』의 원문을 인용할 때, 독자의 이해를 위해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붙였음을 밝힌다.

9) 국채보상을 중심으로 여성이 의무의 이행을 통해 국민으로 호명되고,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경하(2004, 86~87쪽), 홍인숙(2007, 160쪽)의 분석이 제출된 바 있다.

로서 근대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인정 구조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 또한 이를 해소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③ 경계자 본인은 한낱 녀즈라 협음에서 심장하야 비와 아는 것도 본력 업고 듯고 본 것도 별노 업서 세월이 가는지 시디가 변하느니 국가가 무엇인지 다만 입고 먹으면 스는 줄만 녀였더니 여간 국문즈이나 알기로 호로 전년에는 녀머심심하여 데국신문 한 장을 어딴서 비리다 본즉 데삼면에 기차라 문데한 국문풍월 모집광고가 잇기로 점즉함을 무릅쓰고 우슴거리 삼아 변번치 못흔 말을 괴록하여 보너였더니 요형 방말에 춤예하야 상풍으로 신문 발송하심을 입스와 미일 접견하온즉 격절한 언론과 은근한 권고에 비록 용졸흔 녀즈나 었지 감각함이 업스리오 그 시면에 가평학이라 혹은 사람 사는 집에 놀마다 쓰이는 일이니 불가불 볼 것이요, 외보와 잡보는 방안에 안져서도 만리타국 일이며 전국닉 스정이 눈옵헤 보이는 것갓고, 론설 소설 기사 등은 약흔 일을 징계하고 선흔 일을 찬양하야 사람의 마압을 흥기할 뿐 아니라, 조국의 정신을 길너 익국하는 스상을 발케 함이요, 기타 광고 등은 모든 일을 일조에 광포함이니, 연흔즉 신문은 세계에 귀와 눈이라 하여도 무방호도다 대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소식을 모르고 무삼 즈미로 살리오. (생략) (표준경, 평안북도 운산 읍너 기명. 『기사』, 1908.3.24.)

③에 따르면 『제국신문』은 국문을 읽을 줄 아는 여성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정보와 근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였으며, 여성 독자는 기사의 형식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근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 알려져, 이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장을 만들고자 했다.

둘째, 『제국신문』에 억울함을 하소연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도구이자 장으로서 언론의 힘을 활용했다.

④ 작일 오후 삼시량에 었던 부인 일명이 장옷을 버셔 업헤 끼고 무엇을 보에 쓰고 싸셔 허리에 단단히 미고 머리터럭은 어즈러운 쑥갓고 치마는 갈갈히 찌여지고 적오리 고름은 썩러지고 두 눈에는 피눈물 흔적이 돌이지 안이하야 밋친 사람의 모양으로 본사에 들어와 슴흔 소리로 부르되 「여기가 데국신문사 오닛가」 허겨날 본기자 | 놀나 날어나서 문을 열고 무삼 연고로 데국신문사를 찾나호 혼즉 그 부인이 한숨을 싸이 찌지게 쉬고 하날을 불으지즈며 하는 말이 「하도 지원극통한 일이 잇서서 기명흔 여러 량반의게 호소하랴 왓삽는이다」 하느니라 본기자 | 그 곡직을 알고져 하야 청하야 들인 후에 무삼 일인지 전후

리력을 소상히 말하라 혼디 그 부인이 억척하야 말을 일우지 못하다가 겨오 정신을 슈습하고 갈아디, 본인은 평안도 안주 남성면 농장이라 혼는 싸에 사는 김희영의 미망인 리소스이온디 (『별보』, 1908.3.26.)

위의 사례는 ‘지원극통혼 일이 잇서서 기명혼 여러 량반의게 호소하랴’는 미망인 리소사의 이야기를 실으면서, 리소사의 억울함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면서, 문체적 상황(‘허물’)이 고쳐지기를 바란다는 기자의 반응을 실었다. 이는 『제국신문』이 여성독자의 일상적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억울함을 헤아리는 정서적 공동체이자, 문제해결의 출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으며, 여성 독자가 이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홍보’하는 사례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제국신문』이 근대의 내용과 시선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근대 언론으로서의 문화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여성이 포섭되어 있었고, 실제로 여성들은 언론의 논지에 동의하고 지지하며,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근대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정 구조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 2.2. 부정된 여성의 전통/문화

언론을 통해 여성을 근대인으로 호출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근대 여성이 아닌 여성’을 차별화하는 문화적 시선과 입장을 수반했다. 바꾸어 말하면 근대 언론은 이른바 ‘근대인’을 새 시대의 문화 주체로 부각시키기 위해, 그에 반하는 인간상, 말하자면 전(前)근대, 반(反)근대인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논리를 강조했다.

⑤ 근일 녀즈사회가 점점 발던되야가는 것은 거의 다 알 듯하지만은 작년일 심각하고 급년일 심각혼즉 세상일의 변천되야가는 것을 이로 측량치 못혼것도 다. 년전스로 의론혼건디 우리나라 사름들이 부인의 출입을 엄금하야 문밖을 나가지 못혼 쯔더러 남의 집 하인 외에는 얼굴을 들고 일월을 보지 못혼게 혼고 비록 집안의 일가친척이라도 오륙촌만 되면 서로 얼굴을 상디치 못혼는 법

이오 녀즈의 교육이란 것은 지나가는 말도 들어보지 못혼고 미양 혼는 말이 계집들이 학문을 알면 방탕하야 못쓴다 혼고 간신이 국문즈이나 갈아치는 자밧게 업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어니와 혹 누가 녀즈의 교육일을 말혼면 큰 변괴로 알고 녀즈의 얼굴을 들어노코 출입혼다는 일을 말혼면 그 말혼는 자를 오락개로 지목혼더니 세계풍기가 날노 변하야 사름이 아모리 변치 안코져 하야도 즔연중 한 거름 두 거름식 전진하야 서양으로 말하야도 각부 부원청의 서기갓흔 벼살단이는 것은 차치혼고 정부에 들어가 나라일 의론혼는 의원도 되고 법률을 졸업하야 법률학스노릇혼는 부인도 심겼는지라 (...) 그러혼즉 이적를 당하야 녀즈사회의 발동혼는 것을 잘 도제치 안이혼고 그딤토 맞겨두면 큰 폐단이 심길 넘려가 업지 안이혼니 시무의 유지혼 자들이어나 정부당국자들은 김히 강구하야 녀즈사회의 전당을 잘 인도하야 선미혼 결과를 보게혼 것이오 결단코 변고로 알고 막을 심각을 두지 마는 것이 가혼도다. (『문설: 녀즈 사회의 발동』, 1907.5.29.) (이하, 밑줄은 필자)

『제국신문』이 여성을 담론화하는 방식은 교육을 통한 문명개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계몽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년전스’로 언급된 조선의 전근대 사회는 여성 교육의 시각에서 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인의 출입을 엄금하여 견문을 차단하고, ‘녀즈의 교육이란 것은 지나가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던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여교’나 ‘내훈’ 등 여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으며, 다만 그 방식이 가정 내부의 역할에서 아내와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년전’ 사회에 여성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계집들이 학문을 알면 방탕하야 못쓴다 혼고 간신이 국문즈이나 갈아치는 자밧게 업는 것’이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도, 여성 교육 자체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전통, 또는 (중립적 의미에서의) 전근대의 여성 교육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근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근대가 전통·반근대·전근대를 서술하는 레토릭으로 전면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종일의 글로 추정되는) 위의 논설에서는 ‘녀즈 사회의 전당’을 인도할 대상으로 유지한 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을 상정했다. 말하자

면 계몽과 교육의 대상으로 여자를 상정했지만, 여전히 교육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견지되었으며, 여자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 어갈 대상으로서 여성을 배제하는 착종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에 유학하여 명성을 얻고 ‘구라과 빅리의’(필자: 벨기에)에 유 학하던 윤정원의 기사에도 드러나 있다.

⑥ 또 이 세상 나라에 동서남북을 물론하고 사람의 어미된 자는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하여 일평생에 그 몸을 바린다 하여도 뉘를지니 아히가 틱중에 잇슬 썩에는 그 어머니가 틱중 아히를 보호하기 위하여 잠시라도 일동일정을 임의 로 못하고 아히가 어릴 썩에는 그 어머니가 출입을 마암대로 못하며 (...) 이로 보면 어머니 된 이는 자기 일신의 즐겁고 슬픈 거슬 도라보지 안이하고 다만 그 자녀를 위하여 산다하여도 과한 말이 안이로다. (윤정원(尹貞媛), 「별보: 몸을 맞치는 정신」, 1907.10.23.)

⑥은 본래 『태극학보』에 실렸는데 『제국신문』이 전국의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전문을 등재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자녀를 위해 사는 삶’을 강조했다. 남성의 필진인 ⑤의 논지와 여성 독자의 글인 ⑥의 논지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인식에 남성 필자가 주도한 근대 언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언론사의 관점에 보자면, 주필의 입장에 동의하는 독자의 글을 수록함으로써, 이를 ‘여론’으로 형성하는 문화 정치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부인회의 창설을 치하하며 ‘여성의 교제’를 강조한 글<sup>10)</sup>에서조차 여성의 자기 인식이나 교제보다는 자녀교육에 매진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을 주목을 요한다. 근대적 여성상을 강조하는 방식이 여전히 전통적 사유를 반복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중심을 삼지 말고 단체로 중심을 삼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를 억압하고 ‘공’을 지향하는 근대 계몽의 논리를 반복했다. 이러한 맥락은 여성의 위치를 가정의 내부로 한정시켰던 전근대의 발상과 유

10) 윤정원(尹貞媛), 「별보: 몸을 맞치는 정신 (전호숙)」, 『제국신문』, 1907.10.25.

사한 언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sup>11)</sup>

⑦ 대더 우리나라는 즈고 이력으로 녀즈를 천하게 디접혀야 규중에 가두고 문 맞게 나오지 못하게 홀 뿐 안이라 가라치는 바는 반오질과 음식시식 외에 지나 지 못하며, 간혹 국문 비화 군두목으로 편지장이나 쓰고 삼국지 소대성전이나 보면 그 부인은 유식한 부인이라 지목하나 칭찬하는 자는 적고 조롱하는 자가 많았스니 녀즈의 지식이 업스면 사름노릇을 할 슈 업는 중에 더욱 일평생을 옥 에 갓친 사름과 갓치 세상에 나와 보고 듯는 것이 업스니 그러케 어둡고 어리 석고야 홀 집의 주부가 되어 가스를 엇더케 규모 있게 다스리며 자녀를 엇더케 법도 있게 가라치리오. (탄희심, 「문설: 진명부인회를 하례함」, 1907.6.18.)

⑦의 논설은 진명부인회의 개최식에 참석한 뒤에 감동을 전하기 위해 쓴 글인데, 근대적 부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을 규중에 가둔 조선의 풍습과 문화를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여성 문화를 ‘어둡고 어리석은’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여성이 규모 있게 가사를 다스리고 자녀를 법도 있게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화적 ‘불능성’과 ‘무능력함’을 부각시켰다.

이는 근대 계몽의 가치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11) 윤정원의 여성관에는 근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가 혼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용과 착종이야말로 윤정원의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근대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일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윤정원은 여성의 덕목을 반드시 남자의 것과 분리시키지 않았으며, 남녀를 아우르는 상위에 ‘국민’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발견된다. 이에 관해서는 이 절의 다음 사례 분석을 참조(‘부득불 직회지 안이치 못홀 바는 국민덕(國民的) 도덕이라 이 국민덕 도덕을 남자의 편으로 보면 남자의 도덕이요 녀즈의 편으로 관찰하면 녀즈의 도덕이 될지 라 대더 부인의 도덕이라 하는 것은 엇더홀 도덕이고 하는 의심이 잇슬 듯하나 이는 결단코 남자의게는 쓸디업스나 녀즈의게만 필요되는 특별홀 도덕이라 하는 것이 안이라 남자의게도 필요는 잇스나 특별히 녀즈는 불가불 김흔 소양이 잇서야 홀 도덕을 뉘홀 비라: 윤정원(尹貞媛), 「공겸의 정신(恭謙의 精神)」, 1907.10.31.’). 그리고 국민을 상위에 두는 발상은 『제국신문』의 논설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다(예컨대, ‘그런즉 우리가 어린 아히를 길고고 가라침은 부모된 의무가 잇슬 뿐 안이라 국민된 분슈의 썩엇홀이랴(「문설: 풍속기량론」(十一): 아히들의 운동을 힘쓸 일. 1907.11.5.)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윤정원이 여성의 덕목으로 강조한 것은 ‘공겸의 정신’이다.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당대에 현존하는 문화를 ‘과거’로 되돌리고 전통을 부정하는 일종의 근대 계몽 논리의 착종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up>12)</sup> 또한 전통 문화를 쇠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언론과 지식인의 시각을 ‘근대의 눈’으로 전면화하는 언론의 전략이기도 했다.

평양에서 25년을 살다가 경성으로 온 리지춘이 여자 교육을 강조한 기사 「녀자 교육의 시급론」(1908.4.1)에서는 ‘녀자는 남자의 시입하는 노비 갖치 증쾌나 주장하고 간혹 명민하면 빈계신명이라 하여 일심 속박된 몸이 순종할 따름이’었음을 거론하여 여성에 대한 종래의 문화적 습속을 비판했다. 여기서도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의 논리였다. 처음부터 필자는 ‘애국열성’을 권고했으며, 지식이 애국의 전제 또는 선행 요건이라는 발상(‘지식이 있슨 후에 이국지심 절노나니’)을 드러냈다. 따라서 여성이 교육받아야 하는 이유는 애국을 위한 선행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여성이 국민으로 포섭되는 근대 기획의 시선을 내면화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을 ‘국민’으로 포섭하면서 근대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인정하려는 문화적 관습은 『제국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sup>13)</sup> 그리고 이는 종래의 ‘무능하고 부정적인’ 여성상에 반하는, 개화된 여성,

12) 현존하는 전통문화를 ‘과거’로 되돌리는 근대 수사의 모순에 관해서는 최기숙의 발표문(2014㉔): 舊物如何成爲頑固: 透過帝國新聞(1898-1908)看近代代理論的錯綜與逆說(‘옛것’은 어떻게 ‘완고’가 되었나?: 『제국신문』(1898-1908)을 통해 본 근대화 논리의 착종과 역설), (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제 2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2014㉕. 4.21(월), 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 2층 회의실)을 참조.

13) 윤정원(尹貞媛), 「공경의 정신(恭謙의 精神)」, 『제국신문』, 1907.10.31.; 「론설: (풍속기량론) (十一): 아히들의 운동을 힘쓸 일」, 『제국신문』, 1907.11.5.; 「론설: (풍속기량론) (二): 너의하는 폐습을 곳칠 일」, 『제국신문』, 1907.10.11. 등. 근대초기 여성이 국민으로 호명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경하(2004), 82-87쪽; 홍인숙(2007), 158~163쪽; 김복순, 「『제국신문』의 함: ‘여성의 감각’의 탄생」(『민족문화사연구』 51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13)을, 가족 제도의 외곽에 위치한 탈법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공적 단위에서 배제하는 논리에 관해서는 박애경(2008), 117~133쪽을 참조.

근대적 여성으로 자리매김 됨으로써, 근대 여성의 문화적 위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상이나 문화는 부정적으로 위치지어졌고, 이는 근대적으로 ‘부재한 것’이라는 논리적 착종의 구조를 생성했다.<sup>14)</sup>

### 2.3. 풍속개량과 전/근대 여성

『제국신문』은 근대 여성의 함의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전근대적 풍속’이나 ‘반근대적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풍속’은 ‘개량’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졌다. 풍속개량이 ‘정치개량’보다 선행되어야 한다<sup>15)</sup>는 주장을 배경으로, 『제국신문』에 연재된 ‘풍속

14)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재하는 것’으로 위치시키는 담론의 수사학, 또는 언설구조 또한 이 논문에서 다루는 ‘근대의 역설’에 해당된다. 이에 관해서는 각주 12)의 발표문(2014㉔; 2014㉕)을 참조.

15) 이는 ‘문져 풍속을 기량치 안으면 정치의 기량이 실시되기 어려움은 분명호도다」(「론설: 정치기량보담 풍속기량이 급흡」. 1907.10.9.) 라는 의식에 근간한 것이었다. ‘풍속개량론’은 『제국신문』만의 독점적인 주제가 아니라, 근대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온 계몽 담론의 일정한 지형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타의 근대 매체에 대한 ‘풍속개량 담론’에 관해서는 『대한매일신보』를 대상으로 한 이형대(『풍속 개량 담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가사의 욕망과 문명의 시선: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 고전문학학문학회, 2006), 식민지 시기를 다룬 권명아(『풍속 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 『민족문화사연구』 33,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연극장을 중심으로 다룬 문경연(『한국 근대연극 형성과정의 풍속통제와 오락담론: 근대초기 공공오락기관으로서의 ‘극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1, 한국국어국문학회, 2009), 우수진(『연극장 풍속개량론과 경찰 통제의 극장화: 한일합방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32, 한국극예술학회, 2010)의 논문을 참조. 홍인숙(2004)의 논문 VI장에서 다룬 ‘근대계몽기 성 풍속의 개조와 ‘여성’의 발견’은 본고에서 다룬 ‘풍속개량론’과 일치하는 내용이 다루어졌으나, 본고에서 다룬 ‘론설(풍속기량론)’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탄해생의 <풍속개량론> 이전에도 『제국신문』, 『매일신보』, 『독립신문』 등에 조흔, 매대흔, 개가금지 등에 대한 비판적 논설이 제시되었으며, 탄해생의 해당 연재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론인/지식인의 풍속론의 연장선상에서 제출되었음이 파악된다. 연구자의 분석 대상과 시기에 따라 ‘풍속개량’에 대한 미세한 차이성이 발견되며, 이를 ‘사건’으로 기술하는 차원에서는 근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현실적 태



개량론(‘탄희성’이라는 필명을 쓴 정운복의 논설)과 관련 논설·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 짜	호 수	수록 란	제 목	필 자
1907.10.10(목)	2516호	론설(풍속기량론) (一)	녀자의 기가를 허홀 일	탄희성
1907.10.11(금)	2517호	론설(풍속기량론) (二)	녀의 허는 폐습을 곳칠 일	탄희성
1907.10.12(토)	2518호	론설(풍속기량론) (三)	압제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	탄희성
1907.10.13(일)	2519호	론설(풍속기량론) (四)	압제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 (전호속)	탄희성
1907.10.15(화)	2520호	론설(풍속기량론) (五)	턱일 허는 폐풍을 버릴 일	탄희성
1907.10.16(수)	2521호	론설(풍속기량론) (六)	위상에 주의홀 일	탄희성
1907.10.18(금)	2523호	론설(풍속기량론) (七)	상업계의 폐풍을 고칠 일	탄희성
1907.10.19(토)	2524호	론설(풍속기량론) (八)	온돌을 폐지홀 일	탄희성
1907.10.20(일)	2525호	론설(풍속기량론) (九)	음식 먹는 습관을 고칠 일	탄희성
1907.10.27(일)	2530호	론설(풍속기량론) (十)	아히 길으는 방법	튀극학회원 김락슈
1907.10.29(화)	2531호	론설(풍속기량론) (十二)	아히 길으는 방법 (련속)	튀극학회원 김락슈
1907.11.5(화)	2536호	론설(풍속기량론) (十一)	아히들의 운동을 힘쓸 일	
1908.6.5(금)	2705호	론설	녀자의 의복과 단장을 급히 기량홀 일	탄희성
1908.6.19(금)	2074호	론설	부인의 의복을 기량홀 일	탄희성

도 등이 드러나 있다. 이는 논설의 필자를 중심으로 한 풍속개량의 논점과는 다른 생활적 감각·관습·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1908.6.20(토)	2718호	론설	녀자의 기가는 턴리의 셋니홀	탄희성
1908.6.23(화)	2720호	기서	청춘을 규중에서 늣지 몰 일	우우성
1908.6.24(수)	2721호	기서	청춘을 규중에서 늣지 몰 일 (속)	우우성
1908.6.25(목)	2722호	기서	청상의 정상	복춘 일 과부
1908.6.26(금)	2723호	기서	청상의 정상 (속)	복춘 일 과부

풍속개량론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것은 혼인(4편)과 육아(2편)16)에 관련된 6편이며, 그밖에 이와 관련된 논설 2편과 기서 4편이 주목할 만하다.

‘풍속개량론’에서 여성과 관련된 ‘개량’해야 할 풍속의 중심에 놓인 것은 혼인이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이 여전히 혼인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발상을 보여준다. 물론 『제국신문』은 여성의 개가를 지지하고,17) 내외하는 풍속을 ‘폐습’으로 여겼으며, ‘압제 혼인’에 반대했다. 이는 결혼문화를 근대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지만, 여전히 여성 담론의 중심을 혼인으로 삼은 것은 이전 시대와 같았다.

⑧ 네로부터 전허야 오는 우리나라 풍속 가운데 여러 가지 기량홀 일이 허다호 좁에 가장 급허고 큰 문데는 녀자의 기가허는 일인 고로 이왕에도 본기자 | 이 일을 의문홀이 한 번 두 번이 안이로디 오히려 이 풍속을 고치지 못허야 전국 가운데 청년 과거로 무정호 세월을 근심과 슈심으로 보너는 자 | 허다호 니 엇지 사름의 참아 보고 참아 들을 바리오 우리나라 사름은 혼인을 과도히

- 16) 이 글의 주어는 ‘부친된 이’와 ‘모친된 이’(1907.10.27.), ‘어린 아히를 둔 부모와 아즉 두지 못호 부모들’(1907.10.29.)로 되어 있어, 부모 양자의 책임성을 드러냈다. 이는 ‘아히 길으는 방법’을 ‘몸을 건장하게 기를 것’, ‘마암과 의기를 발달식혀 줄 것’, ‘장성호 후에 스스로 셔로 지닐 거슬 준비홀 것’ 등 교육 철학과 태도의 차원에서 논의했기 때문이다.
- 17) ‘본래’ 여자의 개가를 법률로 금지지 않았지만 개가한 사람의 자손은 벼슬길에 오를 수 없게 한 것은 여성의 처신을 가족 제도 안에서 규제하도록 한 문화 통제의 결과였다.; 론설(풍속기량론) (一): 녀자의 기가를 허홀 일, 『제국신문』, 1907. 10. 10.

일찍이 지니며 기가하는 풍속이 업습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보담 이괄청춘에 남편을 여의고 인성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자 | 더욱 만토다 오늘날을 당하여 이 풍속을 고치고져 하면 첫지는 조혼을 힘치 말시오 돌지는 기가를 허홀시오 셋지는 련녀(烈女)의 본의를 그릇 허쳐지 안케 흠이 필요호도다 (탄희성, 「녀즈의 기가는 턴리의 췌니흠」, 1908.6.20.)

위의 논설에서 필자는 ‘상고에는 사람의 도덕심이 발달치 못하여 남자와 녀자가 서로 맞다면 그 음란한 행동이 금수와 달이지 안<sup>18)</sup>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도덕심이 발달했으므로 내외하는 풍속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문명국에서 그런 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논거로 작용했다. 말하자면 ‘도덕심’이라는 윤리와 인성의 차원에서 근대는 이전에 비해 ‘개명진보’한 상태로 상정되었고,<sup>19)</sup> 선진문명국의 판단이 새로운 기준점으로 작용했다.

‘네로부터 전하여 오는 우리나라 풍속 가운데 여러 가지 기량할 일 중에서 가장 급하고 큰 문제가 개가라는 것을 강조한 것(⑧)은 종래의 풍속이 ‘개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상이며, 따라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하고 권고하는 근대의 문화를 선진적인 것으로 홍보하는 관점이 일종의 ‘순환적 논의 구조’ 속에서 생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때 개가를 허용하는 논리는 ‘청년 과거’로 ‘무정한 세월을 근심과 슈심으로’ 보내는 자를 구하기 위함이며, ‘청년 과거’가 생겨난 이유를 조혼 풍속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개가금지와 조혼풍속이 모두 여성의 삶을 압박하는 ‘개량해야 할’ ‘전통(전근대) 문화’라는 언설 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논설은 독자들의 지지를 얻어 1908년 6월 23~24일에 ‘우우성’<sup>20)</sup>

18) 탄희성, 「론설(풍속기량론)(二): 녀외하는 폐습을 곳칠 일」, 『제국신문』, 1907.10.11.

19) 근대의 ‘도덕심’이 전에 비해 ‘발달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의 논설에서도 발견된다: ‘그 시대에에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속이 되었으나 수천년 후 오늘날을 당하여는 시대가 낫지 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도덕심이 크게 발달하였거늘 오히려 옛 풍속을 굳게 직회여 변할 줄 몰으니 이르고서는 범빅스의 진보하거나 발달할 기약이 업스리로다’ (「론설(풍속기량론)(二): 녀외하는 폐습을 곳칠 일」, 1907.10.11.)

20) 우우생이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탄해생’이라는 필명을 쓴 정운복

이라는 필명의 독자가 「청춘을 규중에서 늙지 둘 일」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투고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어 탄해생의 논설과 우우생의 기사를 읽은 ‘복혼의 일 과부’가 「청상의 정상」(1908.6.25~26)이라는 기사를 보내어, 13세에 모친을 잃고 11세 남편과 혼인하여 사별한 뒤, 시 부모를 봉양하며 한스럽게 지내는 심정을 고백했다.<sup>21)</sup> 이는 『제국신문』이 여성 독자들에게 일종의 억울함을 해소연하는 공론장을 제공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문제적 여성 문화를 타개할 근대의 논리를 제안하는 계몽의 장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독자는 『제국신문』을 통해 자기 삶을 반추했으며, 독자 투고를 통해 연민과 동정, 위안의 공감대를 형성해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탄해생은 「압제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1907.10.12~13)이라는 논설에서 ‘혼인 일즉하는 폐단’을 논설한 뒤에 조혼이 부모의 압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폐해야 한다는 논지를 이어갔다. ‘혼인을 남녀 즈유에 맞겨 늦게 홀 일’이라는 논설에서는 ‘피츠간에 지기가 상합하고 힘실이 아름다와 일호라도 미흡한 곳이 업습 후에야 결혼’<sup>22)</sup>해야 한다는 자유 혼인에 대한 논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논설의 뜻을 지지하는 독자의 기사 형식을 취한 것이라, 자기 지지의 언설 구조를 만드는 문제적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로서는 문자 그대로 ‘우우생’을 익명의 필자로 간주한다.

21) 다음의 인용에는 청상으로 지내는 삶의 절박한 슬픔과 고통이 토로되어 있다: ‘남편 업는 계집의 신세가 기밧에 도토리 된 것이 가삼에 맞치고 췌에 사뭇쳐 당장에 약을 먹든지 목을 띠어 죽고 심호되 심목숨을 끈치 못하고 근근히 부지하여 우의로 환거하는 식부를 봉양하며 아기로 수다한 권속을 거느려 크나 큰 세간 살림을 맞은 후로부터 가스에 분주함을 인하여 슬은 심곡이 얼마큰 감호으나 봄꽃 가을달에 다른 사람은 즐거호것만은 나의 구곡간장은 구뵤구뵤 슈심이라 엇던 췌는 주먹을 쥐어 가삼도 두다리며 엇던 췌는 밋친 사들갓치 벌씩 날어나 암뒤췌로 도라든이기도 하며 엇던 췌는 담뱃을 피어 물고 정신업시 안기도 하며 엇던 췌는 자다가 말고 화닥닥 날어 안저 어둠로 천 리 만 리 다라나고 심복 심각이 식암 솟듯 호호되 풍속과 법률에 거러끼여 이리도 못하고 더리도 못호오니 엇지 인칭이라 청호리오’ (복혼 일 과부, 「기사: 청상의 정상(속)」, 1908.6.26)

22) 탄희성, 「론설(풍속기량론)(四): 압제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 (전호숙)」, 『제국신문』, 1907.10.13.

이러한 논지는 풍속을 ‘개량’의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근대를 긍정하기 위해 ‘전근대’를 부정하는 논리 구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여성과 관련된 풍속을 재구성했음을 보여준다. 여성독자는 논설의 논지에 근거해 자기 삶의 의미를 재정리하고, 감성적 반응과 성찰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거나 공감하는 정서적 반응을 표현했다. 그리고 논설은 다시 이러한 독자의 반응을 지지하고 확고히 하는 논지를 이어감으로써, ‘계몽의 기획-독자의 공감-논리화 근거의 확인’이라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때 개량된 근대 여성의 풍속이 과연 ‘전근대’에 비해 근원적으로 ‘선진적인 것’이었는가, 또는 과연 여성의 풍속이 개량됨으로써 근대 여성의 일상이 근원적으로 달라졌는가 하는 문제는 근원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침묵하는 언설 구조 속에서 이에 대한 성찰의 지점은 누락되었다.

#### 2.4. 방황하는 젠더 인식, 여성 주체 구성의 착종

근대 초기 『제국신문』에서 여성의 근대적 문화 개량과 교육이 강조되었지만, 사실상 여성의 지위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향한 것도 아니었다.

풍속개량을 통해 도달해야 할 근대 여성의 일상이 전근대 여성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인교육회나 학교, 부인회 등의 활동이 권고되었지만, 이는 지식층 여성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근대 여성 또한 여전히 출산과 육아, 자녀 교육에 치중하는 ‘어머니’나 가사에 충실한 ‘주부’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전근대 여성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

여성 교육의 핵심을 ‘어린 아히 ㄹ라치는 법도’를 익혀 ‘잘 가라치’게 하는 데 있다고 한 것<sup>23)</sup>은 여성 교육의 목적을 ‘육아’에 두는 종래의 이

23) ‘턴하의 남의 부모 된 자는 누구든지 그 죽식을 나아 기를 적에 두 가지 큰 욕심이 잇스니 첫지는 병업시 잘 잘아서 오릭 사는 것이오 들지는 문무겸전하야 부귀와 공명을 누리는 것이라 (...) 우리나라 사림의 죽식 기르는 풍속은 악습과 폐단이 하

념을 이어받고 있었다. 『제국신문』의 논설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림의 죽식 기르는 풍속은 악습과 폐단’을 부정하고 근대적 방식의 교육을 하게 하자는 ‘방법’에 있었지, 교육의 목표 설정 자체를 달리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산과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설 「희산구원을 심수에 맞기지 못할 일」(1907.6.26.)에서와 같이, 여성 교육을 위해 기능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고려할 때에도 주요한 고려 대상은 출산과 육아의 범주를 벗어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의무를 근대 신문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었으며, 다만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의 근대’를 주장하면서, 근대적 의학과 교육, 위생의 덕목을 강조했을 뿐이었다.

물론 여성 스스로 근대적 여성상을 찾고 이에 대한 의의를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했다.

⑨ 남자들의 학문과 지식이 우리 녀즈보담 별로 나홀 것 업고 이왕 차지하였던 권리 바람에 우리를 압제하는 것인즉 우리가 몇천년 일했든 권리를 차질 놀이 오늘날 우리 손에 달녔다 홀 만호오 그러나 우리가 이러흔 교디의 찾지 못하면 다시는 차질 놀이 업슬지니 (...) 우리도 이러흔 교디에 아모조록 학문을 숭상하야 지식을 열고 의무를 다하야 권리를 찾고 권리를 찾져 몇천년 압제를 벗고 또 남자와 일심동력하야 남자의 일흔 권리까지 차져 보면 그 안이 우리 성명이 스키의 빛날가(북산 녀즈 변월당, 「별보: 의무를 다하야 권리를 차질 일(전호 속)」1908.8.5.)

⑨는 1908년 8월 4일~5일자 『제국신문』의 별보에 2회에 걸쳐 연재된 ‘북한 녀즈 변월당’의 기서 「의무를 다하야 권리를 차질 일」이라는 글이다. 변월당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권리가 구속되어 ‘동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으니, 이는 남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내어준 것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여성의 권리는 의무를 다하는 데서 나온다고 보고

도 만하서 이로 말홀 슈 업스나( 탄희성, 「론설: 어린 아히 ㄹ라치는 법도」, 『제국신문』, 1907.6.20.)

‘학문과 지식’을 숭상하는 것만이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자기 책임성과 교육을 강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여성 자신에게 되돌림으로써 사회비판의 시선을 배제하는 효과를 도출했다. 여성 주체의 성찰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도리어 사안에 대한 여성 자신의 귀책론으로 협소화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 ⑩ (녀학성의 주의건)

一. 다행히 기회를 엿었스니 이찌에 아모도록 속히 신성한 도덕으로 주심을 잡아 가지고 각종 도훈 학문을 만히 공부하여 각각 가정 교육의 제도를 실시할 것과 가족 사회의 쾌락을 유지케 할 일

一. 집안에 잇든지 학교에 단이기 위하여 도로에 왕리할 썩에 몸 가지기를 지극히 단정히 하여 문져 부즈런하여 온유 겸손하며 존절 금박함이 가하고 이외에 슈신상 육익헌 선칭의 교훈과 부모의 훈계를 복종할 일

一. 공부를 한다 하되 장리 성취할 소망은 업고 도로히 사들만 버릴 듯한 중조를 깎갓거든 번그러움을 스양하고 다시 좋용히 처하여 전일의 성실히 전문으로 빅호든 바느질과 빨래 다듬이 하는 법과 음식 만드는 법을 온전히 공부하여 가면서 여가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글 국문을 잘 히득하여 이리흔 도훈 데국 신문갓흔 신문과 가정잡지갓흔 서적을 만히 보셔서 맛갓으로는 세상일도 슬히고 안으로는 집안을 잘 다스릴 일 (김영구, 「괴서: 녀학성 제군의게 권고함」, 1908.2.6.)

⑩의 사례는 ‘괴서’의 형식으로 게재된 여성의 사회적 기대를 담고 있는 글이다. 여기서도 여성에게 학문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쓰임은 ‘가정 교육’과 ‘가족 사회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설정되었다. 장래에 성취할 소망이 없다면 전일에 배우던 바느질, 빨래, 다듬이, 음식 등을 공부하라고 권고한 것은 여성에게 사회적 목표나 성취를 강조하기보다는 가사 일을 우선적인 목표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여성의 삶을 가정과 자녀 교육으로 한정시킨 논리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여성을 여전히 ‘어머니’로 호명함으로써, 여성 교육을 자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 것 또한 근대적 관점에 내포된 전통적 시선이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24)</sup>

‘풍속개량론’ 연재 이후에 탄해생이 게재한 「너즈의 의복과 단장을 급히 리량할 일」에서 여성의 의복을 개량해야 하는 이유로서 사회의 풍속 개량과 더불어 자녀 교육을 거론한 것 또한 여성 생활의 근대화에 ‘자녀 교육’이 기준점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여성적 삶의 기준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성의 일상, 정체성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언설 구조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었다. 말하자면 ‘방법/시각’으로서의 근대와 ‘내용/이념’으로서의 전근대가 불균형하게 만나는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 3. 전통 윤리의 지속과 부재하는 근대 여성: 서사

그렇다면 근대계몽을 선언하거나 뒷받침하는 『제국신문』의 논설과 이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기서·별보와 달리, 정서적 공감대에 근거한 상상적 이야기 구조 속에서, 근대 여성의 일상과 지향 가치, 정체성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잡보란에 실린 소설과 기타 지면에 실린 각종 서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국신문』의 ‘잡보’가 현실의 사건을 기사화한 지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비록 강한 서사성의 맥락을 띠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잡보란에 실린 여성 인물의 성격은 그대로 당대 현실

24) 『제국신문』 논설의 풍속개량론에서 근대적 방식의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어머니상을 강조한 관점은 곧바로 독자의 반향을 얻게 되는데, 한 독자가 2회에 걸쳐 「오히려 어머니를 권면함」(1908.2.15~16)이라는 기사를 연재한 것이 그 예이다. 논설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은 신문과 언론의 역할이 가장 명시적으로 부각된 예에 속한다. 독자는 논설의 취지에 동의하거나 이에 합당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지지하는 경험과 논지를 서술함으로써, 스스로 근대적 인간형으로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을 살아가는 여성의 역할이나 기대가 투영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제국신문』이 표기문자로서 국문을 선택하면서 여성 독자를 고려해 왔다는 것, 그리고 전통적으로 소설이 여성의 문화 상품이자 읽을거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국신문』에 게재된 서사에 나타난 여성상을 살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주목을 요한다. 첫째, 『제국신문』의 서사에서 여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되는가. 둘째, 서사에 등장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텍스트 내부와 외부의 시각은 어떠한가.

여성과 관련하여 잡보와 서사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제국신문』의 서사가 형상화하는 여성상은 매우 착종적이며, 그간 근대문학/문화(사) 연구자들이 간과했던 근대의 표정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여기에는 근대 계몽의 이념이나 근대적 이성, 근대적 제도와 문화적 태도, 교양 등을 적확하게 구현하는 여성 주체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제국신문』의 서사에 등장하는 여성은 근대성의 타자로서, 그리고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정확하게 근대성의 내용을 숙지하여 내면화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또한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했다. 이는 근대 여성에게 전통적인 여성의 윤리·신념·태도가 여전히 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반근대’의 모습으로 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근대’의 단면을 구성했다.

### 3.1. 현모양처 여성상의 지속과 근대 여성의 딜레마

1906년 9월 18일자에 수록된 「소설」은 첫날밤에 신랑의 어리석은 처신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한 여성 이야기(「어리석은 신랑과 명특한 신부」)를 다루고 있다. 신부는 첫날밤 조카의 희롱을 받은 남편에게 ‘장부가 되어 무식하면 세상에서 아지 못하니, 너가 엇지혹야 살던지 랑군의 뒤를 털 거시니 공부하라’고 권유하여, 절로 울려 보낸 뒤, 십년 간 공부하게 한다.

여기서 신부의 역할은 ‘침선방적과 제반 로동을 다하야 미삭 신랑의 의식을 공급’하는 내조로 일관되었다. 또한, ‘영귀한 아들을 나아 나라에 훈공을’ 세우도록 하는 어머니의 역할로 한정되었다. 말하자면 근대계몽의 논지로 일관된 신문에서 신부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편과 아들의 입신출세를 돕는 보조자로 위치지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 구조와 여성 인물의 형상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남자와 혼인하여 출세시키는 야담에서 ‘여성 이인’의 계보를 이은 것이었다.<sup>25)</sup>

한편, 1906.9.19.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연재된 ‘소설」 「평양 외성 싸에」<sup>26)</sup>는 평양 회성에 사는 고아 한씨의 혼인담이다. 한씨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의 집에서 자라지만, 가난하여 혼처를 구할 수 없던 중에, 강동 부자인 김좌수의 손녀와 혼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씨가 가난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처가에서는 한씨를 박대했다. 이에 한씨는 계교를 내어 부인을 본가로 데려가는데, 이때 서술자는 ‘녀즈는 삼종지의가 잇슨즉 비록 십상구스허더러도 랑군을 짜라가리다’(小소說설, 『제국신문』, 1906.9.19.)라며 남편을 따라가는 과정을 서술했다.<sup>27)</sup>

25) 야담에서의 여성 이인담에 대해서는 최기숙, 「여성성의 재발견: 이성·지혜·성공의 탈영토화-18·19세기 야담집 소재 ‘여성일화’를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3)을 참조. 『제국신문』의 해당 서사는 여성 이인담의 구도를 정서와 서사의 차원에서 잇고 있다.

26) 이 제목은 소설의 첫 구절을 따서 제목으로 삼은 김영민의 명명법을 따르며, 이후로도 제목이 붙지 않은 『제국신문』 잡보란의 ‘소설」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을 따른다(김영민·구장률·이유미,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하, 소명출판, 2003). 강현조에 따르면 이 소설은 이보다 앞서 『한성신보』에 「계이취거액금, 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바 있다(강현조, 「근대초기신문의 전래 서사 수용 및 변천 양상 연구: 『한성신보』와 『제국신문』의 공통 게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237쪽). 논자가 지적한 바대로 서사적 동일성을 갖추었고 내용이 확장되었지만, 구체적인 서사전개의 흐름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인물 성격의 해석에도 차이가 나며, 문장 단위의 서술도 차이가 있다.

27) 물론 이러한 서술자의 주제적 확정 또는 주제적 제안과는 달리, 독자에 따라 해당 소설의 주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재구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대계몽의 논리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신문의 문화적 위상을 고려할 때, 소설의 주제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서술 형식이 갖는 문화적 힘을 간과

서사 전개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이나 위치는 남편에게 순종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을 키워준 조부모보다 남편의 의사결정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삼종지도’의 전통적 윤리를 추수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술자는 신부가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때에는 그간의 친밀한 정이도 작용했지만, 삼종지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전제로 삼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서사’라는 이야기 형식 속에서 여전히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양육하며, 삼종지도를 따르는 현모양처형의 여성상에 대한 공감대를 반영했다. 동시에 서사 내부에서 ‘지식’과 ‘학문’의 혜택을 받는 인물을 남성으로 제한함으로써, 여성인물을 근대성의 함의에서 배제된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여성의 삶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던 근대 언론의 전체적인 지형 속에서, 서사적 상상력 또한 ‘반-근대적’ 여성상을 지속하는 모순을 반복했음을 보여준다.

### 3.2. 충·효·열의 희생자, 부재하는 여성의 자리

『제국신문』에 8회에 걸쳐(1906.10.22.~11.3) 연재된 「소설: 살신성인」은 추노 관련 설화에 근거해 있다.<sup>28)</sup> 친부를 살해한 노비의 외동딸과 혼인하게 된 주인공 광동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 처가에서 살해의 위기에 처한다. 이때 신부는 부모를 살리면 상전과 가장이 죽고, 상전과 가장을 살리려면 부모가 죽을 것이라며, ‘첫집 상전이 좋고, 그 다음은 가장이고, 친댁 부모는 출가의인이라.’(「殺身成仁」, 『제국신문』, 1906.11.2.)고 함으로써 이들간에 존재의 경중을 서열화하는 논리를 펼쳤다. ‘부모를 살리고져 혼디 상전과 가장이 죽을 거시오, 상전과 가장을 살리고져 혼즉 부모가 죽을 거

시니 부모를 살리는 거시 가호오릿가, 상전과 가장을 살리는 거시 가호오릿가라는 신부의 고민을 일종의 딜레마라고 한다면, 이는 가장/상전과 부모를 선택해야 하는 ‘곤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민의 지점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인식을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부의 처신은 앞서 살펴본 ‘삼종지’를 존중하는 여성의 처신(『소설』, 『제국신문』, 1906.9.19)과 완전히 동일할 뿐더러, 야담집 『청구야담』에 실린 「삼강을 구비한 계집중(乞父命忠婢完三節)」(41화)<sup>29)</sup>과도 유사하다. 『청구야담』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향단)은 함께 사는 노복들이 추노 나온 남편을 살해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옷을 바꾸어 입은 뒤, 아버지만을 살려달라고 청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 여종의 의식은 충·효·열의 이데올로기에 강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희생이 남성 인물들의 목숨을 구하고 안위를 보존시키는 데 바쳐짐으로써,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되는 여성상을 보여주었다.<sup>30)</sup> 이에 대해 야담의 편자는 여종의 희생을 치하하는 논평을 덧붙였는데, 이러한 논조는 『제국신문』에 실린 「살신성인」의 논평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① 시신을 건지난디, 십오년 된 광씨의 신체가 일호도 썩지 안코 형용이 싱활흔 사람과 갓고 쫘 그 신부의 시신은 그 광씨 신데 압해 누엇는 거시 더욱 귀이흔지라. 만득의 부처 즈녀를 다 법디로 조쳐호되, 오죽 싹헛 즈식은 죽은 신부의 유언을 짜라 살녀두고 나라에 계문호야 그 신부를 표양호야 성문을 세웁스되 한 가지는 충로오, 한 가지는 효부요 한 가지는 열녀라. 그 몸을 죽여 강상대의를 온전한 자, 탄하에 몇몇치나 되리오. 현풍 싸에 그 정문이 지금까지 분명이 잇서서 보는 자 탄상치 안으 리 업다더라. (「殺身成仁」, 1906.11.3.)

② 아! 이 여자는 주인을 위해서는 충(忠)을 이루었고, 지아비를 위해서는 열(烈)을 이루었으며, 아버지를 위하여는 효(孝)를 다하였으니, 일거에 삼강(三綱)

29) 이월영·시귀선 옮김,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4, 202~204쪽.

30) 여기서 국가에 대한 ‘충’의 관념은 ‘주인’에 대한 ‘복종’의 관념으로 수용되었으며, ‘정절 의식’의 표현이었던 ‘열’ 관념은 남편을 살리기 위한 희생 관념으로 변질되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기숙, 「불멸의 존재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귀신’과 ‘자살’ 일화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 12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331~333쪽을 참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8) 이에 관해서는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개장양상 연구」(『국어국문학』 34집, 국어국문학회, 1997)을 참조. 이 소설은 『한성신보』에 「기략생복습사」라는 제목으로 먼저 실렸다(강현조, 2013, 235쪽).

을 갖추었던 것이다. 본 읍에서는 비(碑)와 정문(旌門)을 세워 주었다(噫! 此女爲其主逐其忠 爲其夫成其烈 爲其父盡其孝 一舉而三綱具矣. 本邑立碑旌焉). (『삼강을 구비한 계집중(乞父命忠婢完三節)』, 『청구야담』 41화)<sup>31)</sup>

『살신성인』의 논평에서는 ‘첫지 상덕이 좋고, 그 다음은 가장이고, 친정부모는 출가외인이라(『殺身成仁』)는 이유로 하면서, 상전·가장·친정부모 사이에서 생명의 경중을 서열화했다. 여기서 여성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논평자 또한 ‘나라에 계문하야 그 신부를 표양하야 성문을 세운 것으로, 여성의 처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책을 마련한 것을 서술함으로써, 여성의 처신을 지지했다. ‘충로’이자 ‘효부’이고 ‘털녀’라는 전통적 가치는 1906년에도 여전히 『제국신문』의 독자층에게 설득할 만한 ‘가치’로 옹호되었으며, 이는 이전 시대의 문화 논리와 이념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또한 『살신성인』에서 부인의 희생으로 살게 된 남편은 부인과 함께 눈물을 흘릴지언정, 이를 만류하거나 살해 계획에 맞서 싸우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는데,<sup>32)</sup> 이 또한 『청구야담』에서의 반응과 일치했다. 이 두 텍스트는 모두 ‘강상대의’를 따르는 여성을 치하하고 그 삶을 선양함으로써, 전통적 가치를 따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구조화했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제국신문』이라는 근대적 인쇄매체에 수록된 서사였지만, 서사구조나 주제, 정서 구조는 이전시대의 공감 구조와 일치했으며, 다만 근대 신문이라는 매체의 근대성으로 인해 근대 서사로 위치지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신문의 논설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된 반근대의 이념에 근접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서사적 차원에서 전통과 근대의 부

31) 번역은 필자가 원문을 보고 다시 수정하였다(『청구야담』, 앞의 책, 203~204쪽).

32) ‘꼭써가 그 정경을 보미 더욱 슬픔을 익이지 못하야 손을 붓들고 울음이 북받쳐 엇지홀 줄을 몰으더니 (...) 서로 안쇼 누어 눈물노 지너더니’ (『殺身成仁』, 1906.11.2.); ‘선비는 매우 슬퍼하였다(士人大感傷).’ (『삼강을 구비한 계집중(乞父命忠婢完三節)』, 『청구야담』 41화, 위의 책, 같은 쪽)

정교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근대의 일면으로 존속되었던 전통을 근대에 실재하던 현장의 삶으로 재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3.3. 남성의 조력자, 산종되는 여성의 주체성

『제국신문』 1906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된 ‘소설’ 『경상남도 문경군에』<sup>33)</sup>는 경남 문경군의 부가자제(富家子弟) 오유생과 여성 사당패의 이야기이다<sup>34)</sup>. 사당패에게 호의를 건넰 오유생

33) 조선후기 야담집에서는 능력이 있지만 처지가 낮은 남자를 남편으로 골라 출세시키는 여성 이야기가 종종 발견되는데, 서술자나 논평자는 이 여성들을 ‘이인’으로 평가했다.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의 논문(2003)을 참조. 한편, 『차산필담』에는 황성의 선비 이선략이 종로의 천냥방의 기생을 거것으로 속인 뒤 위협하여 금강산으로 가서 중들에게 술을 팔아 거금을 버는 내용이 실려 있다(이우성·임형택 편역, 『李朝漢文短篇集』(上). 일조각, 1973, 『捰美酬儷』, 73~80쪽). 여기서는 남자의 권유로 기생이 술창을 차려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얻지 못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국신문』에 실린 위의 이야기와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찾기는 어렵지만, 소재나 상상력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34) 10일에 걸쳐 연재된 이 ‘소설’은 신문에 최초로 연재된 소설이라기보다는 이미 원작이 있던 소설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소설이 연재되던 도중에 ‘그 계획이 무엇이고, 회회를 불지어다.’(1906.9.29.)라는 문장이 제시되는데, 이는 연재가 마무리되는 위치가 아니라 연재 도중에 적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회를 불지어다’라는 문장은 한정된 지면에 일정한 분량을 게재하고, 다음 날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필요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텍스트의 문장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다가 발생한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현조에 따르면 이 ‘소설’은 『한성신보』(1896.8.7.~22. 잡보 2면)에 ‘창녀지보은기모(娼女之報恩奇謀)’라는 제목으로 먼저 실렸다(강현조, 2013, 231쪽). 그런데 『한성신보』의 텍스트에도 ‘회회를 불지어다’라는 문장이 없으며, 이 문장이 제시된 부분이 2회에 해당되므로, 『제국신문』의 텍스트가 『한성신보』를 참조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텍스트가 연재된 다른 신문이나 매체가 존재했고 이를 『제국신문』의 기자가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성신보』에 수록된 소설이 이후에 필사되어 단행본으로 유통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다른 신문에서 참조하고, 『제국신문』이 이를 저본으로 삼아 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강현조는 『제국신문』의 텍스트가 보다 확장된 서사라고 판단했는데, 필자가 확인한 결과, 『제국신문』의 경우가 서사 전개에서 대한 여성의 주도권이 보다 강조되어 있

이 가세가 탕패하여 유랑할 때, 사당으로부터 보답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젠더적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사당패 여성이 자신에게 은전을 베풀어준 남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성매매도 마다하지 않는 과정을 다소 선정적으로 서술했다. 술청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했던 여사당이 점점 호객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나, 마을 사람들이 사당의 술청에 호감을 보이는 과정은 독자층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독자의 호기심이 곧 신문의 매출과 관련된 여건을 고려할 때, 상업적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여성이 은혜를 갚기 위해 남성과 부부로 가장하고 술청을 차려 돈을 벌도록 처신하는 과정에는 여성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소설’의 전개 과정은 ‘지인지감’을 갖춘 여인이 ‘능력이 있으나 가난한’, 또는 ‘잠재력이 있으나 몰락한’ 남자를 만나 출세시킨다는 야담 서사와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말하자면 야담의 여성 이인담이 이 ‘소설’에서는 여성 보은담으로 바뀐 셈이다. 그러나 소설 속의 여사당은 온전한 의미에서 ‘여성이인담’을 승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사당은 온전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며, 앞날을 헤아리는 ‘이인’이라기보다는 오직 ‘은혜갚음’ 또는 ‘의리’에 충실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혜를 갚은 이후에는 ‘자기 삶의 자유’를 회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보조자로서 자기 생의 일정 기간을 바친다는 점은 야담과 동일하다. 그러나 야담에서는 여성 이인의 주도적 행위가 강조된 반면, 이 ‘소설’에서는 여성의 행위가 ‘보은’을 위한 일시적 도구로 기능했다는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이 소설에는 서사전개의 흐름과 인물의 성격 설정에 모종의

었다. 예컨대, 『제국신문』에서는 여성의 권유로 남자주인공이 사고를 시작하고, 술장사를 권유받기에 이르는데, 『한성신보』에서는 여성이 권유하는 부분이 없다. 한편, 「경삼남도 문경군예」에서 사당이 파는 술로 열거된 ‘소주 약주 탁주 맥주 삼관주 오갈피 등숙’(1906.10.1.)에 언급된 ‘맥주’는 근대에 새로 등장한 종류의 술이다.

착종과 결렬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물형상이나 서사 구성 면에서는 조선후기 여성 이인담의 성격과 유사하지만, 이야기는 조선후기 여성 이인담이 형성된 맥락성(context)<sup>35)</sup>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근대적 여성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과 근대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양자에 대한 이해의 불완전함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사의 정합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일정한 착종과 격렬을 보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착종과 결렬의 지점이야말로 ‘서사적 근대’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판단한다. 관습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전통적인 서사전개의 틀에 익숙하지만, 근대적인 서사 구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과 근대의 서사가 어색하게 조우한 방식이, 바로 근대초기 서사의 한 단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색한 조우’는 젠더적 차원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상상하는 데에도 그대로 투과되었다.

#### 3.4. 열의 윤리에 대한 응호와 음녀에 대한 규탄

『제국신문』 1906.10.19.-20에 걸쳐 연재된 「(小說) 犬馬忠義」는 영남에 사는, 열행이 탁이한 부인이 가장의 무덤 근처에 초막을 짓고 조석상식을 받들다가 쾌류한에게 겁간의 위협을 당해 자결하자, 부인의 개가 관가로 달려가 범인을 잡게 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개는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법에 호소하고, 범인을 처벌하게 한 뒤에 무덤 앞에서 죽는다.

이 소설에서 부인이 당한 겁간의 위기와 자결 과정은 매우 선정적이고

35) 간단히 정리하자면,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려면 ‘남편’이라는 매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대개의 여성 이인담에서 여성의 신분은 중인(이하)이므로, 상대 남성은 능력이 있으나 신분이 몰락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 중에서 선택되었다. 이 여성은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본질을 읽는 눈(知人之鑿)이 있지만, 여성인데다가 신분이 낮아서 자신의 능력을 ‘현실화’하려면 ‘남편’이라는 매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최기숙(2003)의 논문을 참조.



폭력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수백 년 전 영남 땅’에서 발생한 일로 소개되었으며, 부인의 처신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청되었던 열과 절개를 실천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여기서 개가 범인을 죽이고 열녀의 무덤 앞에서 죽은 것으로 마무리 된 것은, 이 이야기가 법적 처벌 못지않게 심리적 복수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맥락 속에서 완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작가(또는 기자)가 이 소설의 주제에 대해 ‘세상사람’의 발언이라는 형식으로 논평한 내용도 ‘주인의 은공을 갚는 것’에 집중됨으로써, ‘충’의 관계론을 강조했다.

이는 다음날(1906.10.20.) 이어지는 소설 ‘견마충의’에 제시된 개와 소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주인을 위하는 충의가 하늘에 사무쳐 공을 이루었다.’는 정성의 논리에 호소하면서 ‘사람의 지혜와 노력은 정성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나라 형세는 소와 개에 부끄럽다’는 사회비평적 언설로 이어졌다.

⑬ 평론하는 자 같으되,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니, 불을 써서 주인을 구한 기와 범과 싸와 주인을 구한 소가 었지 능력이 잇서 그러하리오. 다만 그 주인을 위하는 충의가 능히 하늘에 사모친 고로 필경 공을 넣었는지라. 증심도 그러하거던 함음며 사름의 지혜와 능력이야 정성만 도려하면 무삼 일 되지 않는 거슬 근심하리오. 지금 우리나라 형세로 의론홀진디 었지 그 소와 기가 붓그럽지 안이흔가. (『小説』 犬馬忠義, 제국신문, 1906.10.20.)

그런데 바로 이러한 논지는 바로 근대가 부정하던 전근대의 문화논리이기도 하다. 근대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전히 전근대의 지식과 교육 내용, 정서적 공감대에 의존해야 했던 착종의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제국신문』 1907년 1월 31일과 2월 2일의 잡보란에 2회에 걸쳐 연재된 「穿人鼻巡廻」라는 기사이다. 이는 사건에 대한 정보 제시차원의 기사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 묘사가 두드러진 서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전라북도에 사는 조씨 가족

2인과 처가 3인, 처측의 간부 1인의 살해와 사망, 자살 등 총 6건의 죽음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8세의 무남독녀 조씨는 홀시어머니의 칠대독자인 김씨(14세)와 결혼했다. 그런데 신랑의 조부는 신부가 간부와 함께 신랑을 죽이고 도망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간부를 살해하고 자결했다. 뒤이어 신랑의 모친, 신부의 부모 등 총 4명이 자결했으며, 이로써 총 2건의 살인과 4건의 자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과 기자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⑭ 법부에 보고하야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자 하야 법부에 보고하미 법부에서 지령하기를, ‘각도각군으로 회시흔 후 본도에 환슈하라.’ 흔지라. 음력 십월일일부터 그 계집 아히를 다리고 남북도 각군으로 단이며 그 스실을 설명하느디 일전에 공주군에 갖쳐서 지금 충청북도 청주지방으로 갖느디 그 계집 아히의 코를 풀고 털스를 써여 슬고 단이고 의복은 그 신행 썩 입었든 디로 록의홍상에 당의와 족도리를 쓰였고 그 죽은 간부 아히놈은 그 계집아히의 외록촌 되는 놈이라더라.

⑮ 읍흐다. 즈고 이력으로 강상대변이 허다하거니와 었지 이럿케 육칠명이 일시에 죽는 자 어디 잇스며 또한 남의 죽음을 밧지 안고 즈결하기를 그갓치 용이케 흔 자 어디 잇스리오. 무섭도다. 간음에 폐단이며. (원) (『잡보: ● 穿人鼻巡廻』, 제국신문 1907.2.1.).

이 사건의 비극은 신부가 정부와 간통한 것을 목도한 신랑의 조부가 간부를 살해하고 자결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6인의 죽음을 몰고 온 원인이 신부의 간통으로 규정되었으며, 그 신부는 코를 뚫고 철사를 끼워 끌려 다니는 형벌을 받았다.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는 그 자체로 흥밋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기자는 이를 ‘간음에 폐단’으로 정리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여성의 음행을 마땅히 징계해야 할 대상으로 위치 지으려는 정절 의식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작용했다.

이러한 것은 여성에게 여전히 ‘절개’와 ‘열’이라는 전통적 윤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 또한 근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윤리이자 문화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전통 문화’로서 강조되어야 했으나, 전통과 과거에 대해 오로지 ‘비판’과 ‘부정’의 수

사를 펼쳐온 근대의 언론은 이를 '전통의 윤리'나 '문화'로 옹호하는 대신, '여성의 음행'이나 '간음의 폐단'이라는 풍속의 논리로 전유함으로써, 근대 여성의 문화를 재맥락화했다.

#### 4. 결론

여성을 중심 독자로 상정하면서 국문표기 방식을 택했던 『제국신문』은 개화와 문명론을 강조하는 계몽 언론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도 학교를 통한 교육과 부인회 등의 사회활동과 봉사, 직업을 가진 삶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근대 여성의 정체성과 일상문화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제안해왔다. 이러한 취지를 선도하는 『제국신문』의 기본적인 입장은 여성을 '국민'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한편, 조혼과 개가 금지 등의 혼인 풍속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인권을 저해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여성과 관련된 전통 문화를 '개량'의 대상으로 위치시켰다.

그러나 정작 풍속개량을 통해 도달해야 할 근대 여성의 문화적 내역은 여전히 출산, 육아, 자녀 교육에 치중하는 '어머니'나 가사에 충실한 '주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근대 여성의 역할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젠더적 차원에서 근대 여성의 삶의 지향점이 이전 시대와 연속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제국신문』은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나 시선을 새로운 것으로 담론화함으로써, 이전 시대를 부정하고 비판하거나, 그러한 삶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논의하는 '부정'의 레토릭을 펼쳤다. 그리고 이는 전통과 근대의 착종적 만남, 또는 일종의 '부정교합'을 형성했다.

한편, 여성에게 학문을 권고하는 이유 또한 '가정교육'과 '가족사회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설정됨으로써, 『제국신문』의 논설과 별보(기서)는 '방법/시각'으로서의 근대와 '내용/이념'으로서의 전근대가 불

균형하게 만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근대와 근대의 비대칭적 관계는 독자 대중의 상상력과 감성에 기반을 둔 '서사'에서도 착종적으로 재현되었다.

양식화된 소설이 연재되기 이전에 『제국신문』에서 '소설'로 소개되거나 '서사적 기사' 형식으로 수록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편에게 헌신하거나 삼종지도를 따르는 인물로 등장하여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충·효·열의 이념을 실천하고, 상전/주인·남편·아버지를 위해 희생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자리를 박탈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여성상은 『제국신문』이 그토록 '개량'되어야 할 대상으로 호명했던 '전근대'의 여성상과 일치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근대 기획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과 착종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의 서사에서 이전 시대의 야담 서사에서 보이는 이인 여성의 서사를 차용했지만, 주체적 여성의 태도나 능력을 계승하지는 못했다. 또한 남성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에게 열의 윤리를 강요하는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남성에게 종속된 성 관념을 유지했다.

근대 계몽을 주도한 근대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근대의 이념을 제도와 일상의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논설과 주장을 전개했으며, 독자들은 이에 호응하고 지지하는 형식으로 독자투고(기서)를 게재했다. 그러나 주장과 이념으로서의 근대는 내용의 차원에서 오히려 전통, 또는 전근대의 내용과 중첩되어 있었고, 경험이나 정서의 차원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감수성과 공감대에 근간하여 성립하는 서사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근대적 착종과 의식/경험 간의 분열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근대 여성의 정체성이나 일상에 대한 근대적 변혁을 주창하는 근대 언론의 경우에도 반복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순과 착종, 그리고 딜레마를 근대의 모습으로 간주하고, 근대화의 논리와 이념의 이면에 경험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불균형한 모습을 '하나이지 않은 근대'의 현장성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여성 담론과 여성 서사를 통해 논증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월영·시귀선 옮김,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4. 1~868쪽.

『제국신문』

『한성신보』

김영민·구장률·이유미, 『근대계몽기 단행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하, 소명출판, 2003, 상:1~590쪽 ; 하:1~430쪽.

2. 단행본 및 논문

Luce Irigaray,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 옮김, 동문선, 2000, 1~293쪽.

강현조, 「근대초기신문의 전제 서사 수용 및 변천 양상 연구: 『한성신보』와 『제국신문』의 공통 게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229~278쪽.

권명아, 「풍속 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367~406쪽.

김기란,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 『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39쪽.

김복순, 「『제국신문』의 힘: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343~385쪽.

문경연, 「한국 근대연극 형성과정의 풍속통제와 오락담론: 근대초기 공공오락기관으로서의 ‘극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1, 한국국어국문학회, 2009, 343~368쪽.

박애경, 「야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제국신문』에 나타난 첩·무

녀·기생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회, 2008, 103~138쪽.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 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 역사』 12, 한국여성사학회, 2010, 189~230쪽.

우수진, 「연극장 풍속개량론과 경찰 통제의 극장화: 한일합병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32, 한국극예술학회 2010, 53~80쪽.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67~98쪽.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 일본인 발행신문 『한성신보』 연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75~98쪽.

이형태, 「풍속 개량 담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가사의 욕망과 문명의 시선: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 고전문학학문학회, 2006, 7~33쪽.

전은경, 「근대 계몽기의 신문 매체와 ‘독자’ 개념의 근대성: 번역어 ‘독자’의 성립 과정과 의사소통의 장」, 『현대문학이론연구』 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75~200쪽.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개작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34집, 국어국문학회, 1997. 61~81쪽.

최기숙, 「이성·지혜·성공의 탈영토화: 18·19세기 야담집 소재 ‘여성 일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93~229쪽.

최기숙, 「전통과 근대의 ‘부정교합’, 표류하는, 서사의 근대성: 『제국신문』 서사의 근대성과 고전 서사의 소환 방식」, 한국고소설학회 제 104차 학술대회 발표문, 2014@.1.15.(수), 숭실대학교 벤처관 311호, 1~25쪽.

최기숙, 「舊物如何成爲頑固: 透過帝國新聞(1898-1908)看近代化理論的錯綜與逆說(‘옛것’은 어떻게 ‘완고’가 되었나?: 『제국신문』(1898-1908)을

통해 본 근대화 논리의 착종과 역설」, 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제 2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2014⑥. 4.21(월), 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 2층 회의실, (中國語:1~13)+(한국어:1~19)쪽.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7, 1~192쪽.

홍인숙, 「근대계몽기 지식, 여성, 글쓰기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57~86쪽.

**Abstract**

**The Paradox between Idea and Experience of Modernity surrounding Women's Identities and their lives**

- The Female discourses and the Representation Printed in *Jekuk-Sinmun* -

Choe, Key-Sook

This paper explained the paradox and contradictions surrounding modernization project which was led by modern printed media and especially focused on *Jekuk-Sinmun*, a representative early modern newspaper which scripted in Hangeul (Korean vernacular) with analyzing the traditional culture, custom, system, thought and knowledge, arranged at main column, correspondence column and imaginative narratives including short stories. And also this paper re-interpreted such paradoxes between modernity and tradition which were represented as column, article, and narratives with the gender perspective.

The modernity as a project and idea was not exactly corresponded with the contemporary ordinary people's practical and real lives. As a result, there were conflicts and paradoxes between idea and life, logic and experience. With the gender perspective, the modern elites group premised pre-modern women's lives should totally changed by criticizing the traditional custom like early marriage, prohibition of remarriage. However when they serialized 'column on custom reformation' as a main column, they still focused on woman's main social roles and identities as mother who should educate children and supporte their husbands. The reason

that woman should be educated in the modern school was subordinated in home education for children and pleasure for family society. There was not implied the idea of woman's self-realization. And such topics of columns were supported and released by the woman readers who sent their letters to the newspaper company.

In case of narratives published in *Jekuk-Sinmun*, woman characters were portrayed as sacrificing wives who never took care of themselves. They only dedicated their lives for their husband, father and master to keep the moral as like chastity for husband, filial duty for father, and royalty for master without considering their lives. The women's lives and their culture which were represented in *Jekuk-Sinmun* were coincidence with those of pre-modern society.

This paper shed new light on the paradox and contradiction of modernity as the idea of modernity which is not one.

Key words: *Jekuk-Sinmun*, modern, paradox, tradition, column, correspondence column(reader's letter), narrative, woman, custom reformation, good wife and wise mother, tradition, modernity which is not one